







세종지역학센터 소식지

세종 '네' 컷

제 7 호 (2026년 03월)

세종지역학 소식지

<세종 '네'컷> 목차

(첫 번째 컷) 요즘 우리 세종시

- 전의를 달리다, 3.1운동 기념 달리기, 전의런
- 로컬에서 답을 찾다 : 세종 디지털콘텐츠 · 디자인 창업자 네트워킹데이
- 초록빛 생명력으로 채운 봄날, 전의 조경수 묘목 축제
- [지역학센터가 만난 예술가] 마음을 빚는 공예가, 유경자

(두 번째 컷) 세종지역학센터의 나날

- 세종지역학센터 위촉연구원을 소개합니다
- 새로운 공간, 더 깊은 시선 : 세종연구원 이사
- 지역학 구현을 위한 집단 지성, 세종학진흥위원회

(세 번째 컷) 알알이 고운 세종

- 임난수 장군은 은행나무를 심고
- 세종의 건축, 자산이 되다 – 첫 우수건축자산 이야기

(네 번째 컷) 세종의 물결 너머

- 국립경주박물관, 금관 특별전

첫 번째 컷!

요즘 우리 세종시

- 전의를 달리다, 3.1운동 기념 달리기, 전의런
- 로컬에서 답을 찾다 : 세종 디지털콘텐츠
  - 디자인 창업자 네트워킹데이
- 초록빛 생명력으로 채운 봄날, 2026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
- [지역학센터가 만난 예술가] 마음을 빚는 공예가, 유경자

세종지역학센터

전의를 달리다, 3.1운동 기념 달리기 “전의런(Run)”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던 지난 3월 13일, 1919년 전의 장터 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전의런(Run)’ 행사가 전의면 만세길 일대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 150여 명은 만세운동이 일어난 3월 13일을 상징하는 3.13km를 걷거나 31분 30초 동안 코스를 누비며 107년 전 선조들의 뜨거운 외침을 몸소 체험했다. 이어 열린 제107주년 전의 3·13 만세운동 기념식에서는 전의초등학교, 전의중학교 학생들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김구, 유관순, 안중근 등 영웅들의 모습을 재현한 퍼포먼스가 펼쳐져 현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지역의 숭고한 역사를 기억하는 이 뜻깊은 발걸음들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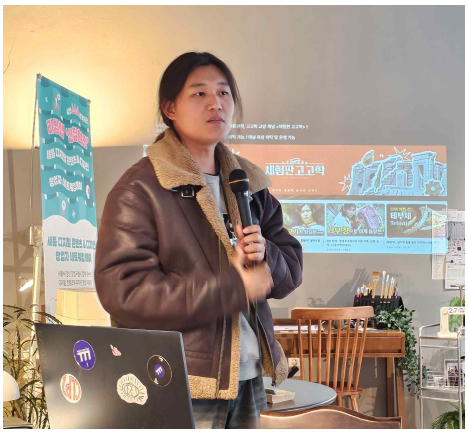


로컬에서 답을 찾다 : 세종 디지털콘텐츠 · 디자인 창업자 네트워킹데이

지난 2월 27일 조치원 어반라운지에서 세종 지역 청년 디지털콘텐츠 · 디자인 창업자 네트워킹데이가 열렸다. 로컬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경험이 쌓여 만들어지는 '문맥'이며, 창업자는 그 문맥을 콘텐츠로 번역하는 크리에이터라는 관점이 제시됐다. 또한 콘텐츠는 마케팅을 넘어 사업 성장을 떠받치는 기본 인프라이자 '비용'이 아니라 '연결고리'라는 메시지가 강조됐다. 고고학 · 디자인을 결합한 실험 사례와 공간 기반 콘텐츠 기획 방식도 공유되며, 세종에서 가능한 협업의 방향이 구체화됐다. 행사는 단발성 만남을 넘어, 네트워크를 '생태계'로 이어가자는 제안으로 마무리됐다.













행사 안내

세종 청년 디지털·디자인 창업 네트워킹 세미나는 "창업의 핀 고민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합니다. 지금 필요한 지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 플랫폼의 방향에 대하여 지역 청년 창업자들과 경험을 나누며,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디지털 콘텐츠·디자인 산업의 성장 전략을 논의합니다.

발 제 이재민 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장
이미은 브랜드잇매거진 대표
장동우 유튜브 체험판고고학 대표
유명한 어반라운지 이사

일 정 14:00 ~ 15:00 | 발제
15:00 ~ 16:00 | 창업자 간담회 및 교류

장 소 조치원 홍익대학교 후문 '어반라운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새동네2길 15 1동 2층

세종특별자치시 홍익대학교

초록빛 생명력으로 채운 봄날, 전의 조경수 묘목 축제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력 가득한 계절, 세종의 봄은 나무를 심는 손길에서부터 시작된다. 지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의면 세종묘목플랫폼 일원에서는 '2026 세종전의 조경수 묘목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방문객이 북적이며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전국 대표 조경수 생산지인 전의면답게 행사장에서는 다채로운 묘목과 화훼가 전시 및 판매되었고, 특히 시민들에게 묘목 1,500주를 무료로 나누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은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현장에는 축제의 흥을 돋우는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가득했다. 신명 나는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국악 K-POP 앙상블, 난타 등 활기찬 문화 공연이 무대를 채우며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특히 '아이가 많은 도시' 세종의 특성에 걸맞게 챌린지 에어바운스, 블록놀이, 페이스페인팅 등 어린이 맞춤형 체험 부스도 운영되어 곳곳에서 부모의 손을 잡고 축제를 즐기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묘목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에게 즐거운 봄날의 추억을 선사한 이번 행사를 통해,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가 앞으로도 세종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지역 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생생현장) 남녀노소 다양하게 즐기는 묘목축제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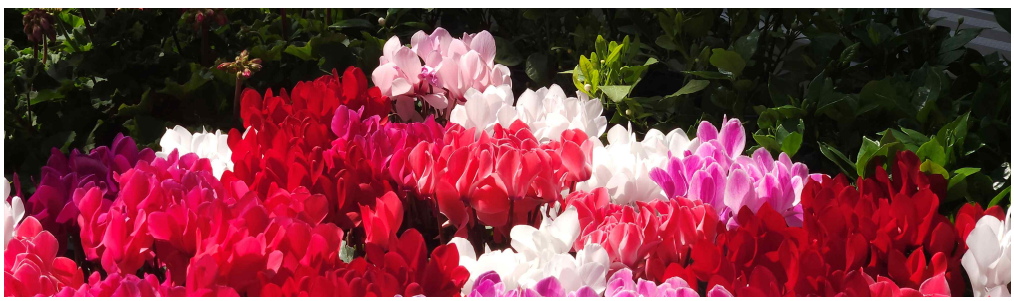












[지역학센터가 만난 예술가] 마음을 빚는 공예가, 유경자

유경자 작가는 **40여 년간 도자 작업**을 이어온 작가다. 전통적인 형태의 도자부터 조형물, 설치, 도자회화까지 매체의 폭을 넓히며 **'흙'이 담아낼 수 있는 감정과 이야기를 꾸준히 확장**해 왔다. 오랜 시간 축적된 손의 감각은 작품의 표면과 형태에 고스란히 남는다. 단단히 구워진 흙의 질감 속에서, 오히려 더 섬세한 마음의 결이 드러나는 이유다.

작업 이력도 탄탄하다. 다수의 개인전과 수백 회에 이르는 단체전 참여를 통해 작업의 언어를 다져왔고, 여러 수상과 매체 소개를 거치며 작품 세계를 넓혀왔다. 특히 교육 자료에 작품이 수록되는 등, **도자가 '전시장의 물성'에만 머물지 않고 일상과 교육의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공예가 단지 아름다운 물건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한 사회의 취향과 감각을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적 실천이라는 사실을 환기한다.









무엇보다 유경자 작가는 세종시 고운동에서 **고운도예공방**을 운영하며, 작업과 지역의 시간을 한 자리에 묶어두고 있다. 공방은 작가에게는 작업실이자 지역과 만나는 창구이고,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예술이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공간**이 된다. 한 도시의 예술 생태계는 거대한 시설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활권 가까이에서 꾸준히 불을 지피는 작업실과 공방들이, 세종의 문화 지형을 촘촘하게 채운다.

올해에도 유경자 작가는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12월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오랜 시간 흙을 만져온 사람이 빚어낸 형태가 어떤 이야기로 우리 앞에 다시 놓일지, 그 다음 장면이 기대된다.

두 번째 컷!

세종지역학센터의 나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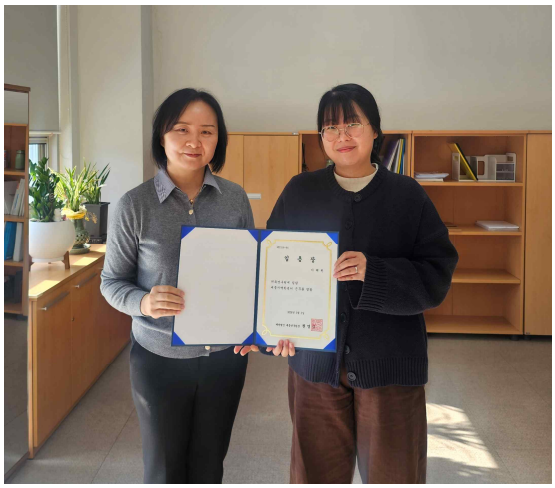
- 세종지역학센터 위촉연구원을 소개합니다
- 새로운 공간, 더 깊은 시선 : 세종연구원 이사
- 지역학 구현을 위한 집단 지성, 세종학진흥위원회

세종지역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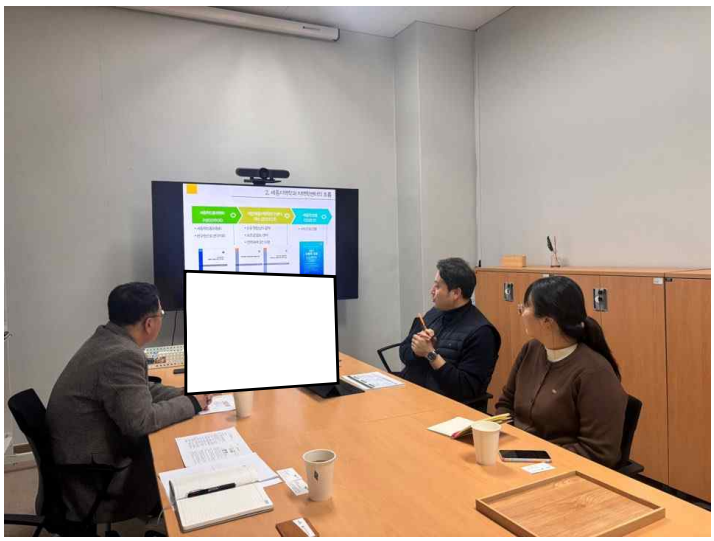
세종지역학센터 위촉연구원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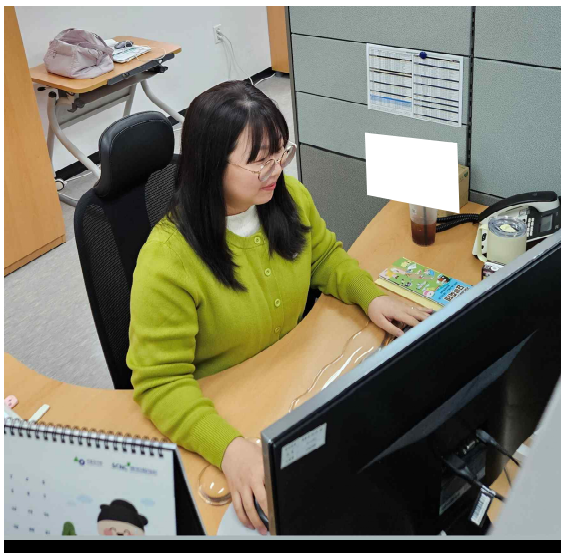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기운이 완연하던 지난 3월, 세종지역학센터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낯선 지역으로의 이주도 마다하지 않고 열정 하나로 센터에 합류하게 된 **신임 위촉연구원 이혜원** 씨다. 영남대학교 역사학과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을 밟으며 학문의 깊이를 더해온 그는 평소 세종시뿐만 아니라 공주, 청주 등 인접 **지역을 아우르는 역사 · 문화 · 사람들에 깊은 관심을 두고 연구**해 왔다. 그는 **"세종과 주변 지역을 잇는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지역 연구를 통해, 세종시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굴하고 시민의 삶과 호흡하는 연구 성과를 내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전했다. 과거의 발자취를 바탕으로 세종의 새로운 내일을 충실히 기록해 나갈 그의 폭넓은 학문적 시선이 이곳 세종지역학센터에서 활짝 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세종지역학센터 위촉연구원 이혜원 씨(左) / 임명장을 받는 그의 모습(右)





세종지역학센터 내 일하는 모습

새로운 공간, 더 깊은 시선 : 세종연구원 이사

새로운 도약의 봄, 세종연구원과 세종지역학센터가 정들었던 소담동에서의 시간을 갈무리하고 대평동(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2281)으로 이전하며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그동안 소담동에서 쌓아 올린 수많은 연구 성과와 치열했던 고민의 흔적들을 밑거름 삼아, 더 넓은 시야와 깊이 있는 시선으로 지역의 미래를 조망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새롭게 마련된 대평동 청사는 앞으로 유관 기관 및 시민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새로운 공간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은 세종연구원과 지역학센터가 앞으로 변함없이 지역 사회와 호흡하며 어떠한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을 꽃피워낼지를 기대해 본다.





세종연구원 대평동 청사 전경





세종연구원 5층에 위치한 연구센터

지역학 구현을 위한 집단지성, 세종학진흥위원회

최근 '2026년 제1차 세종학진흥위원회'가 개최되어 세종학 진흥 계획을 안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오간 가운데, 특히 흩어진 지역 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는 '세종학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었다. 아울러 전문가 중심의 연구를 넘어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주도하는 '시민 참여형 연구'로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위원회는 세종지역학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마중물이 되었다. 시민과 함께 지역학의 저변을 넓히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세종지역학센터의 새로운 발걸음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세 번째 컷!

알알이 고운 세종

- 임난수 장군은 은행나무를 심고
- 세종의 건축, 자산이 되다 - 첫 우수건축자산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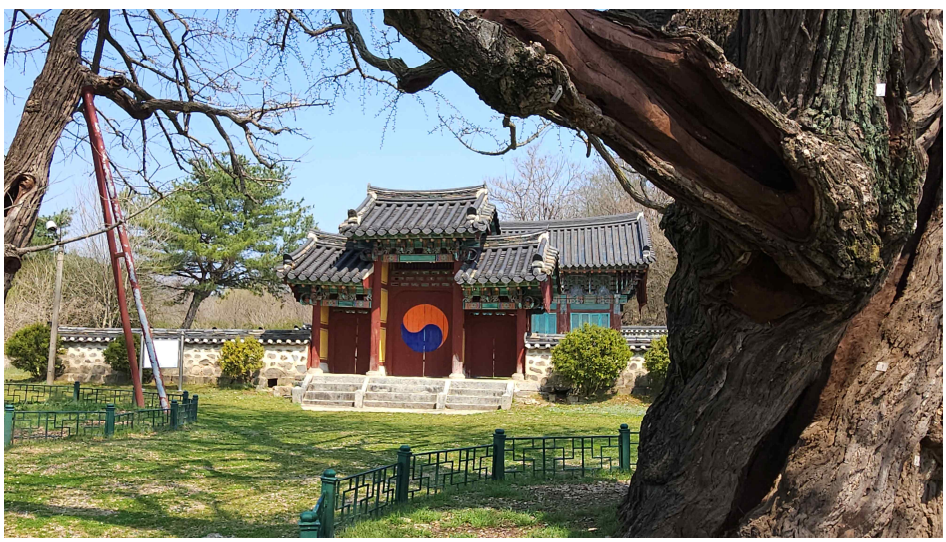
세종지역학센터

임난수 장군은 은행나무를 심고

임난수는 고려 말 제주에서 **목호의 난을 진압한 장수**로, 전투 중 오른팔을 잃는 부상 속에서도 끝까지 싸워 승리를 이끌었다. 이후 그의 이름은 무공을 넘어 **'충절'의 상징**으로 전해진다. 흥미로운 건 이 이야기가 먼 옛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세종 신도심의 일상 가까이에 남아 있다는 점이다.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서 송모각과 은행나무를 마주하면, 세종의 시간이 '새로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또렷해진다. 신도심을 걷다 만나는 오래된 시간, 그 한 장면이 세종을 더 입체적으로 만든다.

※ 세종리 은행나무 역사공원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 세종 세종동 88-4









(생생현장) 물들어가는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













세종의 건축, 자산이 되다
– 첫 우수건축자산 이야기

세종시는 2025년 처음으로 '우수건축자산'을 등록하여, 도시 속 좋은 건축을 기록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우수건축물은 단순히 외관이 뛰어난 건물을 넘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시민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축을 의미한다. 등록된 건축물로는 **조치원 문화정원, 조치원1927아트센터**, 그리고 **장욱진 생가**가 있다. 이들 공간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담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휴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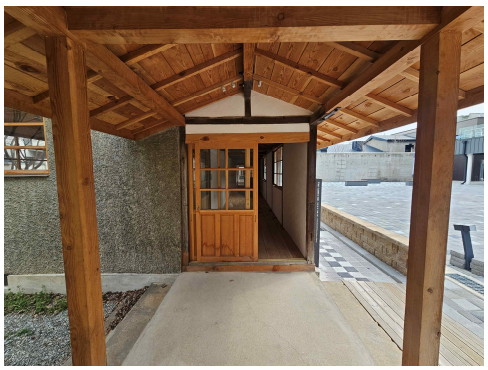
조치원 문화정원은 기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열린 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누구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하였다. **조치원1927아트센터**는 옛 건축물을 재생하여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시간의 흔적과 현대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장욱진 생가**는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기리는 공간으로, 건축을 통해 기억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건축 하나하나가 도시의 가치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우수건축자산의 첫 등록은 **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머물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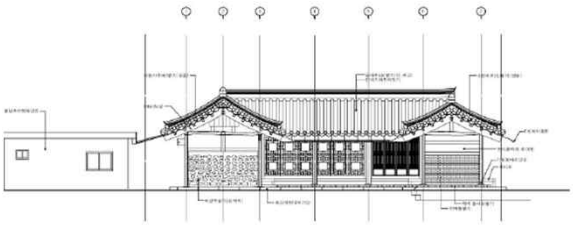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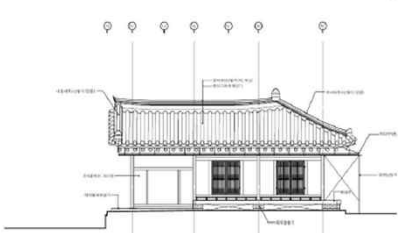
조치원문화정원사진: https://blog.naver.com/jow_munhwagarden/224221354460



장욱진생가 안채 정면도



장욱진생가 안채 우측도

장욱진생가사진및도면: 세종특별자치시내부자료

네 번째 컷!

세종의 물결 너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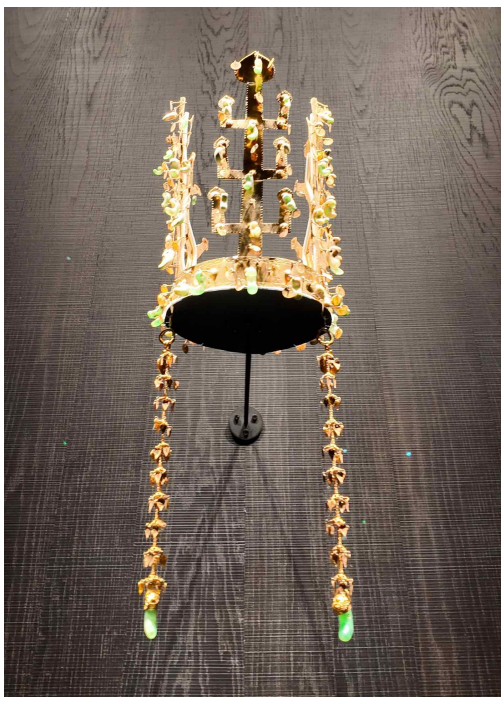
- 국립경주박물관, 금관특별전

세종지역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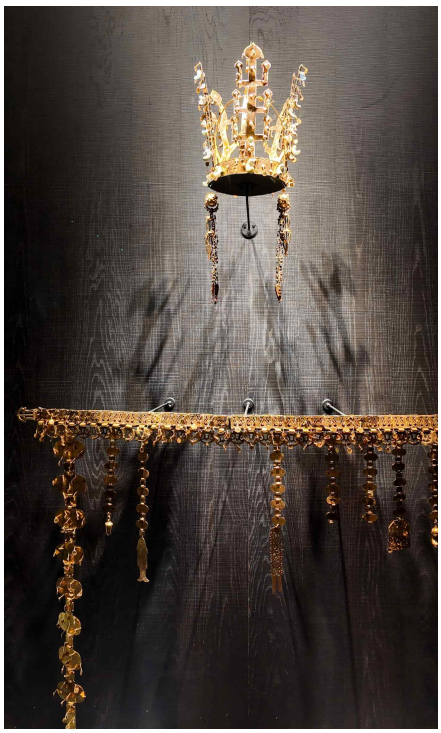
국립경주박물관 금관특별전

특별전은 언제나 만들 수 있지만, 모든 특별전이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시 기획은 **"이 연구는 전시가 될 수 있는가, 된다면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강의는 논문이 '축적'이라면, 전시는 연구 성과를 한 시점과 한 공간에서 '공개된 종합'으로 가시화하는 형식이라고 말한다. 전시는 학계가 아니라 사회와 대화하며, 연구를 공공의 언어로 번역하는 장치가 된다.

이 관점에서 **신라 금관 특별전**은 1920년대부터 축적된 **금관 연구 100년을 '공간으로 번역'한 첫 시도**이며, **여섯 점의 금관을 동시에 비교**하는 전시가 가능해진 **'지금'의 조건**을 보여준다. 또한 APEC 2025 KOREA 공식 문화행사라는 맥락 속에서, **금관은 세계에 한국을 설명하는 문화적 언어**가 된다.







세종지역학 소식지 <세종 '네' 컷>

제7호 (2026년 3월)

발행인 : 권영걸 원장(세종연구원)

기획 : 이재민 센터장(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세종지역학센터)

이자은 연구위원(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혜원 위촉연구원(세종지역학센터 위촉연구원)

원고 작성 : 이재민 센터장(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세종지역학센터)

이자은 연구위원(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혜원 위촉연구원(세종지역학센터 위촉연구원)

사진 촬영 및 편집 : 이재민 센터장(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세종지역학센터)

이혜원 위촉연구원(세종지역학센터 위촉연구원)

발행일 : 2026년 3월 31일

세종지역학센터